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등장한 광주극장 눈길

주인공 금명이 아르바이트 하던 깐느극장 내부 촬영지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올해로 3년째 고향사랑 기금사업의 첫번째 프로젝트로 공을 들이고 있는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이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넷플릭스 시리즈다. 배우 아이유와 박보검이 주연을 맡았다.

광주극장은 1990년대 초중반이 배경인 3막 9~10화에서 애순이와 관식의 딸 금명(아이유)이 매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깐느극장 내부로 나왔다. 금명이 남자친구인 영범(이준영)과 상영관 스크린 앞에서 달콤한 재회를 하는 장면, 개봉하는 영화의 간판을 그리는 화가인 충섭(김선호)가 극장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등이 2023년 12월 이곳에서 촬영됐다.

드라마에 광주극장이 등장하자 네티즌들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 '광주극장을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극장의 익숙한 붉은 의자들은 하얗게 덮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극 중 배경으로 일상 속 장소로 나오니까 더 친근하고 애틋했다' '드라마 분위기와 매우 잘 어울렸다, 광주극장 오래 있어주라' 등의 글을 쓰기도 했다.

광주 동구 충장로46번길 10에 위치한 광주극장은 1935년 10월 1일 개관한 국내 최고(最古) 단관극장이다. 극장이 오래된 만큼 내부 시설, 장비들도 그만큼 노후화 해 존폐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 광주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광주극장을 보존하고자 '국내 최고(最古) 단관 극장 -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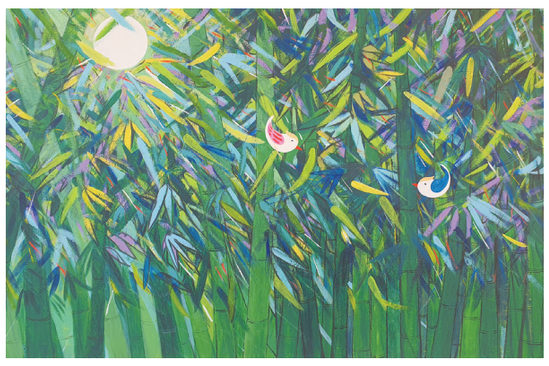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광주극장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며 문화·예술·역사성을 보존해 광주극장을 국내 대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노후화된 영사기, 조명, 좌석 등을 교체해 시민들에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광주극장을 관광과 연계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이 만드는 영화 그림 간판 학교, 광주극장 아카이브관 제작 등을 추진한다.

광주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2023년 8,400여만 원, 2024년 1억3,400여만 원을 모금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90여 만원이 모였다. 광주 동구는 기부금으로 광주극장을 활성화해 폭넓은 관계인구를 형성하고 인문도시 동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며, 광주극장 인근 지역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의 인문자산 광주극장이 넷플릭스 드라마에 등장해 전 세계에 방송돼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도 광주극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한국대나무박물관, 창평면 정난주 지역화가 초대전

"봄, 시가 되어 노래하다" 주제로 마을과 담양 풍경을 화폭에 담아



한국대나무박물관은 4월 1일부터 27일까지 창평면 정난주 화가의 "봄, 시가 되어 노래하다" 주제로 박물관 갤러리에서 지역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봄을 맞아 10여 년 동안 창평면 연화마을에 거주하며 집과 마을의 주변 풍경인 꽃, 새, 나무, 집 등 자연 이미지를 이야기하듯 회화 속에 형상화하는 정난주 작가를 초대,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정난주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풍경을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한 감성으로 재해석해 시가 되고 노래하는 것처럼 화폭에 담아냈으며, 사물의 형광색으로 은유와 의식의 자유로움을 동화처럼 따스하고 아름답게 풀어냈다.

정 작가는 현재 한국미술협회, 광주전남여성작가회, 광주미술작가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양화 강사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창평면에서 문하생들을 지도하며 개인전 30여 회, 그룹전 320회 등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정난주 작가는 "자연의 밝고 자유로운 구도와 색의 조합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고 나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보는 이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국대나무박물관은 일반대관 및 지역 작가 초대전을 통해 군민과 방문객에게 지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다양한 작가들의 전시 활동을 지원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작가들의 전시를 통해 한국대나무박물관이 담양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옥 기자

광양금호도서관, 봄맞이 청춘남녀 대상 독서 행사 눈길

책과 와인으로 연결되는 도서관, 「북 시그널」과 「와인 클래스」

광양금호도서관이 4월을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독서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2030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색 워크숍과 와인 체험 행사가 봄을 맞이한 청춘남녀의 발길을 재촉할 예정이다.

▶ 마음을 여는 사랑의 언어, 「북시그널: 사랑의 다섯가지 언어」

4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북시그널: 사랑의 다섯가지 언어」을 운영한다.

결혼 적령기의 청춘남녀들이 사랑과 결혼을 주제로 로테이션 독서토론 등 워크숍을 진행해 친분을 쌓고 결혼과 가정, 양육에 대한 생각 등 현실적인 주제까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다.

진행을 맡은 윤예지 강사는 세바시(이하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출연해 "다섯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바 있다.

워크숍으로 마련된 이번 특강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호감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사랑에 대해 다뤄 안정적으로 호감을 주고받을 비법을 전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각을 깨우는 이색 데이트, 「시그널 와인 클래스」

도서관에서 이색적인 데이트를 즐길 수도 있다.

4월 14일(월) 오후 7시, 음악당에서 운영하는 「시그널 와인 클래스」는 이정수 국제 와인 전문가와 함께 와인에 대한 기본 이론을 교육한다.

유명한 와인을 소재로 다룬 책과 음악, 그리고 영화 속 명장면 등 문화 콘텐츠를 함께 감상하고 마음에 드는 와인을 시음하는 시간이다. 이 행사에서는 1인당 1만원의 참가비를 받으며, 논알콜 와인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김미라 도서관과장은 "도서관이 도서 대출 공간을 넘어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금호도서관에서 마련한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감성을 나누는 특별한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 신청은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lib.gwangyang.go.kr/)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금호도서관(☎061-797-384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동구도서관 '독서동아리'에 참여하세요!"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인문도시를 지향하며 추진 중인 책 읽는 동구 사업의 일환으로 동구도서관 독서동아리를 모집하고 동시에 독서동아리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을 넘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독서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독서동아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구 활동 ▲5인 이상 참여(50% 이상 동구민) ▲월 1회 이상 자율적인 독서 모임이 가능해야 한다.

등록된 동아리는 30만 원의 예산액 내에서 활동도서, 독후활동 물품, 강사수당, 활동 장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독서동아리 등록제를 통해 올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 현황을 지속 관리하며 책정원, 계림 꿈나무도서관 등 공립도서관의 활동 장소 무료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독서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혜정 기자

순천시 전국 공모 미술대전 수상작 기획展

'봄빛, 예술을 깨우다' 두 번째 이야기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4월 5일까지 순천부 읍성 서문안내소에서 '봄빛, 예술을 깨우다 : 수장고에서 찾아낸 봄의 빛' 2회차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음지(수장고)에 머물렀던 작품들을 양지(전시장)로'라는 기획 의도 아래,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했던 순천시 전국 공모 미술대전 수상작들품들을 주제별로 3회에 걸쳐 다시 시민 앞에 선보이는 자리이다.

총 200여 점의 수상작 가운데 선정된 50여 점이 전시되며, 1회차에서는 서양화와 동양화를 중심으로 예술적 깊이를 보여준 데 이어, 2회차에서는 사진과 서예 부문 수상작 총 21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하나의 공간에서 각각의 장르가 지닌 고유의 시선과 감성, 독창적인 표현 방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서예는 문자의 조형미를 통해 감성을 담아냈다.

전시는 문화의 거리 내 서문안내소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매주 일요일 휴관) 무료로 운영되며,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우수한 작품들이 시민들과 다시 만나는 이번 전시가, 지역 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국 공모 순천시 미술대전을 통해 보석 같은 작품들을 발굴하고 소개해 시민의 일상이 문화예술로 더욱 풍요로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